

## 나의 지도 교수님과 함께 만나기 (20 팀 김준영 강민규 이재영 이호연)

저희 팀이 생각한 2040 – 2050 년도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김영욱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어 봤습니다.

### 교수님의 견해:

다양한 관점에서 미래 사회에 누리게 될 기술들을 고민해본 흔적이 엿보입니다.

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안전의 측면에서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이동교통수단 및 드론 택배 시스템이 도심에서 운행되다가 서로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기술 뿐만 아니라 하늘길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규가 마련되는 등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실제 기술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20팀: 김준영, 강민규, 이재영, 이호연

## 우리가 상상한 미래



**하늘을 나는 개인교통수단 & 수직이착륙 택시:**  
한국의 좁은 땅의 한계를 극복한 공중 이동수단으로, 급한 이동 시 지상 교통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제공한다.

**레벨 5 완전자율주행차:**  
모든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완전 자동화 차량이다. 신도시에서는 자율 셔틀버스가 대중교통의 핵심이 되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.

**인공지능 (AI) & 휴머노이드 로봇:**  
2040년대에는 인간형 로봇이 가정에 보급되고, 개인 맞춤형 AI 비서가 일상 속 다양한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돕는다.

**에너지 제로 하우스:**  
전력을 스스로 생산해 사용하는 친환경 주택으로, 도시의 에너지 자립을 돕는 핵심 요소이다.

**드론 택배 시스템:**  
아파트 옥상 등 전용 착륙장에 드론이 신속하게 물품을 배송하는 시대가 된다. 주문 후 몇 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.

**메타버스 교실:**  
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만나 학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보급된다.

**AR 안경 및 렌즈형 기기:**  
스마트폰 기능을 대체하는 착용형 AR 기기로, 손짓, 시선, 뇌파 등으로 조작할 수 있다. 길 안내, 통화, 번역 등 다양한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.

**도시 운영 최적화 AI:**  
센서와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난방, 배수, 공기질 등을 자동 조정하여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.

**스마트 헬스케어:**  
웨어러블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기관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. 건강에 이상이 생길 시, 원격의료 기기로 집에서 간단한 시술이 가능해진다.

**이미지 생성 시 사용한 LLM Prompt:**  
Drawn in a warm, nostalgic 1970s-1980s Korean comic style, showing cheerful scenes of everyday life in 2050. Flying cars, solar-powered homes, humanoid robots, autonomous vehicles, drone deliveries, AR glasses, metaverse classrooms, wearable health tech, and AI-managed smart cities together create an optimistic and humorous vision of Korea's future.

**미래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재 기술:**

- 하늘을 나는 개인교통 수단 → 전용기, 비즈니스 제트기, 한국의 스타트업인 플라나(Plena)가 현재 eVTOL을 개발중에 있다
- 레벨 5 완전자율주행차 → 테슬라 레벨 2 자율주행차, 메르세데스-벤츠의 레벨 3 자율주행차
- 에너지 제로 하우스 → 유럽 연합에서는 2030년부터 짓는 건물은 Zero-Emission, 즉 탄소배출 제로라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

**우리들의 모습 느낀 점:**  
지금의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쓰듯, 미래의 우리는 하늘을 나는 택시와 로봇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느껴 살아갈 것이다.